

大覺國師 義天의 天台宗 創立과 宋의 天台宗

최 병 헌
(서울대 국사학과)

—

天台宗은 東아시아의 大乘佛敎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파의 하나로서 中觀派 불교인 三論宗에서 발전한 것인데, 중국에서는 일찍이 6세기말경인 隋代에 智者大師 智顛(538~597)에 의해서 최초로 성립되었으며, 그것이 韓國과 日本에도 전해져서 각각 독립된 종파가 되었다. 일본의 천태종은 平安期인 9세기초에 傳敎大師 最澄(767~822)에 의해서 성립되어 일본불교의 주류적인 종파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중국에서의 천태종 성립 초기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 뒤 계속하여 중국 천태종의 발전 단계마다 참여하여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 적이 있었음¹⁾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종파 성립은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늦어 11세기 말경인 高麗中期에 와서야 大覺國師 義天(1055~1101)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같이 中國 韓國 日本의 천태종은 그 성립시기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국의 천태종은 성립시기에서 뿐만 아니라 그 불교

1) 중국의 천태종이 대성되기 이전인 南岳慧思의 문하에는 백제의 玄光, 그리고 천태종을 창립한 智顛의 문하에는 고구려의 波若이 있어 일찍부터 천태종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천태종의 제5조 左溪玄朗의 문하에는 신라승 法融·理應·純英 등 3인이 천태종을 진흥시켰던 荊溪湛然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고려초의 義通과 諦觀이 吳越에서의 천태종을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상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에서도 크게 다른 점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천태종은 南北朝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隋代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華北지방에서 유행되던 實踐적인 불교와 南方에서 성행되던 學問佛敎를 통합하여 綜合佛敎를 성립시킨다는 사상사적 과제를 가지고 성립되었기 때문에²⁾ 學問과 實踐, 즉 敎門과 觀門 二門의 調和를 그 大義로 하였다.³⁾ 그 결과 중국의 천태종은 방대한 敎學的 體系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그의 實踐門인 止觀은 敎宗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천적 불교인 禪宗의 수행방법인 禪定이나 定慧와 비교되었다.

한편 일본의 천태종은 奈良의 南都六宗의 불교 모순, 특히 三論宗과 法相宗의 대립을 지양하려는 사상사적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며, 南都의 舊佛敎와 대립하여 천태종의 독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히 南都佛敎의 諸宗 가운데도 가장 치밀한 논리성을 가진 法相宗과의 全面的인 對決을 피할 수 없었다. 법상종에 대한 사상적 독립을 고하는 교리논쟁이 三一權實論爭이라고 하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천태의 一乘主義와 법상의 三乘主義와의 우열론, 그리고 천태의 一切皆成說과 법상의 五姓(性)各別說과의 대립 등의 문제였다. 또한 南都舊宗으로부터 敎團의 독립을 이루려는 싸움은 大乘戒 獨立運動으로 전개되었는데, 818년 比叡山으로 돌아온 最澄은 자신이 일찍이 19

2) 천태종 개창의 가장 유력한 外護者는 晉王廣(뫼날의 隋煬帝)이었는데, 統一國家의 建設者와 綜合的인 中國佛敎의 形成者의 반담은 歷史的 必然이라고 할 수 있다.

3) 智顓은 560년, 23세 때에 河南省의 大蘇山에 들어가 慧思로부터 一心三觀의 心婁를 받아 얻음으로써 천태종 개창의 단서를 일게 되었는데, 그는 大蘇山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미 南地의 불교학의 성과를 흡수하여 法華最勝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며, 이제 北地의 실천불교의 체득자인 慧思에 의하여 그 확신에 힘을 실은 종교적 생명을 풀어놓게 되었다. 그는 뫼날 575년 천태산 華頂峰에 은거하여 수행중 깨달음을 체험하고, 585년 舍陵에 나와 『法華文句』를 강의하고 이어 589년 荊州에 옮겨 玉泉寺를 건립하고 『法華玄義』와 『摩訶止觀』을 개강함으로써 천태종 개창의 기초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智顓의 많은 저술 가운데 『法華經』을 중심으로 하는 이 3종의 저술을 이른바 '天台三大部'라고 하여 천태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 가운데 『法華文句』는 그 註釋, 『法華玄義』는 그 原論, 그리고 『摩訶止觀』은 그것에 기초한 實踐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때 東大寺의 戒壇院에서 받았던 小乘 250계의 棄捨를 선언하고, 새로 『梵網經』에 의거한 大乘戒壇 건립의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신라 불교사에서는 삼론종과 법상종의 대립과 법상종의 삼승교학 문제, 그리고 『梵網經』에 의거한 대승계의 문제 등이 이미 7세기 후반 元曉(617~686)에 의하여 해결을 보았던 것인데, 일본에서는 9세기초에 들어와 천태종의 창립과정에서 비로소 문제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천태종의 특색을 결정하여 주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密敎와의 관계였다. 最澄은 天台敎學만이 아니라 密敎祈禱에도 관심을 가져 804년 唐에 갔을 때 천태산에서 천태종의 제6조 荊溪湛然의 제자인 道邃와 行滿으로부터 天台觀門을 전수받는데 그치지 않고 국청사의 惟象으로부터 밀교를 배웠으며, 이어 越州에 가서 密敎의 善無畏의 法孫 順曉에게 灌頂을 받고 다수의 밀교경전을 전수하여 귀국하였다. 그리하여 天台와 함께 密敎를 함께 흥포한 결과 일본의 천태종은 止觀業과 遮那業, 천태와 밀교의 組合된 형태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뒤 圓仁和 圓珍 등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唐으로부터 밀교를 받아들임으로써 比叡山의 천태교단에서의 밀교화의 현상은 가속화되어 갔다. 그 결과 법화와 밀교의 조화를 기도하면서도 교리와 실천 양면에서 밀교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천태종의 기본적인 藏·通·別·圓의 四敎判을 폐기하고 圓敎의 위에 眞言密敎를 위치시키는 五敎判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천태종의 밀교화라고 하는 현상은 平安朝의 貴族政治의 展開와 호응하면서 진행된 것인데, 순수한 밀교인 眞言宗과 양립되어 平安佛敎의 二大主流를 이루면서 대립되었다.

중국 천태종에서는 唐代 이후 화엄교학과와의 대립 갈등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오랜 시간을 지나 宋代 山外派의 사상으로 결실되었던 데 비하여 일본 천태종에서는 眞言密敎와의 대립 갈등을 통하여 天台密敎로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 때 성립된 한국의 천태종은 밀교적 성격을 띤 일본의 천태종과는 말할 것도 없고,⁴⁾ 중국의 천태종과도 상당히 다른 점이 있었다.

4) 신라 불교계에서도 8세기 말 9세기 초에 唐으로부터 밀교를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玄超와 義林 같은 신라 출신의 밀교 승려는 각각 最澄과 空海의 法嗣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일본 밀교의 성립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성립 당시의 사상사적 과제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義天(1055~1101) 당시 고려 불교계는 교종 계통인 華嚴宗과 法相宗이 양대 주류를 이루어 대립하고 있었고, 禪宗이 제3종단의 위치를 차지하는 교단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화엄종 출신인 의천이 불교계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그 의도는 교리적인 면에서 법상종에 대한 화엄종의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것과 교단면에서 禪宗의 포섭을 통한 천태종을 새로 개창하는 것이었다. 그에 상응하여 의천이 내세운 불교의 핵심과제는 性相兼學과 教觀并修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教觀并修라는 사상사적 과제는 천태종의 창립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천은 그의 구체적인 노력으로써 宋僧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佛敎典籍을 수집하는 한편으로 教觀并修의 문제를 확인하고 天台宗을 새로 전수하여 왔다. 그 결과 의천에 의하여 성립된 천태종은 宋의 천태종을 받아들인 것이었으면서도 그 내용이나 성격은 상당히 다른 점이 없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천에 의한 천태종 개창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당시 불교계의 사상사적 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아울러 宋의 천태종과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二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일생은 11세의 나이로 화엄종의 靈通寺에서 불교에 입문한 이래 華嚴宗의 승려로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년에 가까운 43세 때인 肅宗 2년(1097)에 天台宗을 새로 개창하고, 종전의 興王寺의 住持직과 함께 새로이 國淸寺의 住持직을 兼職함으로써 화엄종과 천태종

그러나 본국에서는 善無畏나 金剛智 계통의 밀교가 독립된 종파로는 성립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밀교가 주류적인 불교로 대두된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의 천태종에 대한 이해에서는 일본의 그것과 달리 밀교적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의 두 종단을 함께 장악하여 영도하였다. 그런데 의천에 의한 친태종 개창은 단시일에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친태종 개창의 뜻을 세운 것은 宋에 가기 앞선 30세 이전부터였다. 의천은 渡宋 전에 생모 仁睿太后와 鷄林公 熙(뒤의 肅宗)에게 “天台三觀은 最上眞乘인데, 이 땅에 아직 이것을 開立치 못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나는 간절히 이를 뜻합니다.” 라고 하여 친태종 개립의 뜻을 밝히고 두 사람으로부터 그 후원을 약속받은 바 있었다.⁵⁾ 그런데 화엄종 출신인 의천이 끝까지 화엄종단을 떠날 의사가 없으면서 새로 친태종을 개창하여 禪宗을 포섭하려고 할 때에 먼저 주의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불교의 實踐的인 면에서 禪宗의 禪과 天台의 止觀의 同異點, 그리고 敎學的인 면에서 華嚴과 天台의 調和 可能性 등이 아닐 수 없었다. 진자의 문제에 대해서 의천은,

“옛날의 禪은 敎에 의기하여 禪을 익히는 禪이었는데, 지금의 禪은 敎를 떠나서 禪을 說하는 說禪이 되고 말았다. 이 說禪은 그 名目에 집착하여 그 實을 잃고 있는데 반하여 禪은 그 事理를 따짐으로 인하여 그 뜻을 얻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의 矯詐의 폐단을 구하고, 古聖의 醇精한 道로 復歸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不立文字 敎外別傳’의 達磨 계통의 선종을 부인하고 天台의 止觀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⁶⁾ 그리고 후자의 문제, 즉 華嚴

-
- 5) 林存 撰술, 『南嵩山德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朝鮮金石總覽 上, 1919, p. 330).
- 6) 遼의 道宗은 대상경을 간행할 때에 조서를 내려 義學沙門 詮曉(일명 詮明) 등으로 하여금 經錄을 재정하여 『續開元釋敎錄』 3권을 편수케 하였는데, 선종의 기본적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六祖壇經』과 선종의 傳燈錄의 시초라고 할 唐 智炬의 『寶林傳』을 모두 불태워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의천은 僞妄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여 은근히 공격을 표시하고, 福唐의 飛山默子 戒珠가 선종에서 내세우고 있던 敎外別傳의 心法을 적파하기 위하여 찬술한 『別傳心法議』라는 책을 얻어 자신이 편찬한 『圓宗文類』 권21에 수록하면서 불인 발문에서 戒珠의 辯論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공격을 표시하였다. (大日本續藏經 제1집 제2권 제6부 제2책 소개 『別傳心法議』 참조) 한편 南宋代 志磐이 咸淳 연간(1265~1274)에 편찬한 『佛祖統紀』 권14, 僧統義天條에서도 의천이 『別傳心法議』에 부친 跋文을 전제하여 주고 있다.

과 天台의 調和 문제에 대해서는 宋에 가서 華嚴宗 승려들에게 질의하여 해답을 구하였다. 즉 의친은 卞京에서 宋의 조정에서 의친의 상대지로서 친거한 有誠을 만나자 “鬢首와 天台의 教判의 同異點 및 두 종의 미묘하고 그윽한 뜻”에 대한 문답을 하였으나,⁷⁾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어 杭州의 淨源을 찾아가 한해 겨울을 나면서 華嚴教觀에 대한 강의를 듣는 가운데, 教觀并修說을 확신하게 됨과 아울러 화엄과 천태의 조화 가능성을 澄觀의 “화엄의 五教와 천태의 (化法)四教는 大同하다.”는 말을 통하여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淨源은 의친이 가져간 화엄진적을 통하여 중국 화엄을 부흥시킨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그는 말년에 『法華經』을 주석하였으며, 의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華嚴經』과 『法華經』 두 경은 불교의 表裏요, 始終의 絕唱이다.” 이라고 하여 화엄학과 함께 천태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의친은 淨源을 통하여 화엄과 천태의 조화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天竺寺의 從諫를 찾아가서 天台教觀을 전수받고, 이어 귀국길에 올라 天台山의 國淸寺를 찾아 智者大師塔 앞에서 發願文을 지어 “錢塘의 慈辯大師에게 教觀을 전수받았는 바, 귀국하여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라고 誓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화엄종의 입장에서 천태종을 받아들여려고 하였던 의친이 宋의 천태종을 전수하여 음에 있어서 宋의 天台宗의 學派 가운데 화엄화된 山外派가 아닌 순수한 천태의 입장을 지키려는 山家派의 從諫로부터 天台教觀을 받아오고 있었던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천태종은 六祖 慧然(711~782) 이후 華嚴化되어 갔는데,⁸⁾ 宋 초기에 四明知禮(960~1028)와 慈雲遵式이 출현하여⁹⁾ 천태종의

7) 林存 撰述, 「南高山佛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 p. 331 참조.

8) 智顛의 6세 법손인 荆溪湛然是 17세 때 출가한 이후 천태종을 비롯하여 律·華嚴 등의 제종의 교학을 널리 공부하였으며, 말년에는 천태산에 들어가 천태학의 연구와 교단의 경영에 주력하여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천태종의 종세를 떨치게 함으로써 唐代 들어와 法相宗과 華嚴宗의 융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천체에 빠졌던 천태종을 부흥시킨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의 대표작인 「天台三大部」의 주석(『法華文句記』, 『法華玄義釋籤』, 『摩訶止觀輔行傳弘決』 각 10권)은 단순한 師說의 조술이 아

正體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滿然 이후의 친태종이 화엄이나 선의 사상을 흡수하여 본래의 특색을 상실하게 된 것을 개탄하고, 原始天台인 智顛 敎學에로의 복귀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는 孤山智圓이나 梵天慶昭와의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知禮 등은 자기의 입장을 正統으로 내세워 山家派라 칭하고, 華嚴화된 天台學者를 山外派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知禮 이후 宋의 친태종에서는 華嚴敎義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山家 山外로 나뉘어 論難 抗爭을 벌이게 되었다. 그 논쟁의 주제는 天台智顛의 『金光明經玄義』의 廣略二本의 문제, 『法華經』의 別理隨緣 不隨緣의 문제, 『請觀音經』 所說의 理性毒害의 문제, 『觀經疏 妙宗鈔』 所說의 色心双具說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전개되었는데, 그 요점은 화엄의 唯心論과 친태의 實相論의 對立, 또는 화엄의 性起說과 친태의 性具說의 抗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엄종의 입장에서 새로이 친태종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의천으로서 는 화엄종 敎義를 받아들여 唯心論을 내세우고 있던 山外派의 주장에 공감할

-
- 니고, 法相·華嚴·禪宗 등의 여러 종파와의 사상적 대결 극복을 통하여 친태종의 宗義를 발양하려고 한 것이다. 제종 가운데는 화엄종파의 관계가 가장 주목되는데, 그는 화엄의 사상을 흡수하여 친태교학을 해석함으로써 교학적으로 한단계 깊게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華嚴化의 단서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친태의 실천적인 색채는 현저하게 희박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9) 슴튼 2년(842) 唐의 武宗이 단행한, 이른바 '스튼의 破佛'은 중국불교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철저한 불교 탄압이었다. 그 결과 初唐부터 中唐에 걸쳐서 번성하였던 여러 종파는 일시에 침체의 눈에 빠졌다. 9세기말인 唐末부터 五代에 걸쳐서의 정란기에 친태산에서는 기본적인 宗典을 잃어버렸던 모양으로 10세기가 되어 이러한 상태를 개관한 螺溪義寂은 친태산 지역을 영유하여 번영하였던 吳越王 錢弘俶의 후원을 받아 밀리 고려에까지 불전을 구하였다. 고려 光宗은 이 요청에 응하여 諦觀으로 하여금 불전을 보내 주었다. 諦觀은 그 뒤 吳越에 머물러 친태학의 개론서인 『天台四敎儀』을 저술하였다. 義寂이나 諦觀 등의 노력에 의하여 친태종 부흥의 기운의 단서가 열리게 되었다.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에 걸쳐서는 義寂의 제자에 고려 출신의 寶雲義通이 나오고, 의종의 문하에서 四明知禮와 慈雲遵式이 나와 친태교학의 화엄화 경향을 비판하고 智顛敎學에의 복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친태종은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로 천태종의 교의를 보다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山家派의 從諫에게서 천태교관을 전수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일찍이 高橋亨은 不可解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¹⁰⁾ 그 이상의 추구는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의천의 천태사상을 이해하려고 함에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三

의천이 宋에 머무는 동안에 직접 만났거나, 서신으로 교류했던 宋의 승려 50여명 가운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하여지고 있는 사람은 41명이다. 이 41명을 소속 종파별로 분류하여 보면, 華嚴宗 13인, 天台宗 8인, 戒律宗 3인, 法相宗 2인, 禪宗 5인, 西天梵學 2인, 所屬宗派 未詳 8인이다. 이 가운데 화엄종의 승려가 13인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의천의 불교 중심이 화엄종이었다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천태종 승려가 많은 것도 의천의 불교에서 제2의 종파가 천태종이었던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¹¹⁾ 의천과 교류했던 宋의 천태종 승려 8인을 山家派 山外派 등의 학파별로 분류하여 보면, 山家派에 속하는 승려는 從諫 元淨 中立 法隣 등 4인이며, 山外派에 속하는 승려는 仁岳 可久 등 2인이고, 기타 나머지 惟勤 辯眞 등 2인은 法系가 불명이다.¹²⁾ 이로써 山家派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從諫이 의천에게 天台教觀을 전수해 준 正統의 祖師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山家派가 正統

10) 高橋亨, 「大覺國師義天の高麗佛教に對する經綸に就いて」(『朝鮮學報』 10, 1956, p.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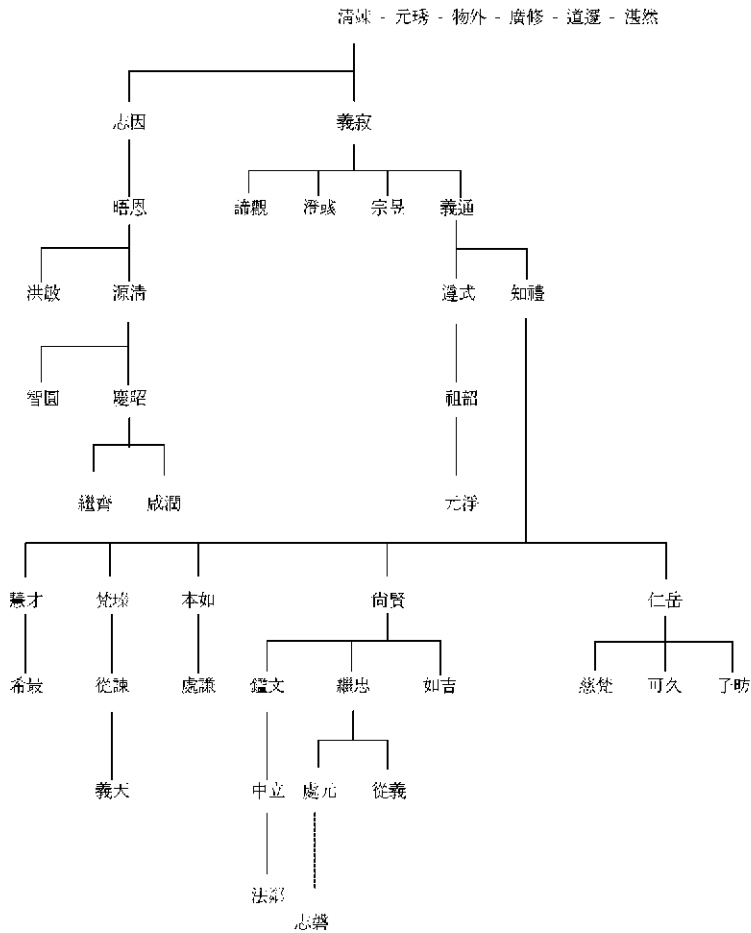
11) 「僊鳳寺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에 의하면, “국사는 세상에 뛰어난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여러 종의 학문에 사무쳐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스스로 인정하여 자신의 임무로 삼은 것은 賢首와 天台 양종에 있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의천의 불교학의 폭은 대단히 넓어 여러 종파의 교학을 섭렵하였지만, 중심으로 삼은 것은 화엄과 천태였다.

12) 拙稿, 「義天과 宋의 天台宗」(『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1992, pp. 841~62).

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宋의 불교계에서 山家派 승려들의 학적 활동은 知禮 이외에는 山外派 승려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화엄종의 입장에서 새로이 천태교학을 받아들여 화엄 천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던 의천으로서는

圖表 1. 宋代의 天台宗系譜



山家派 승려들과의 교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결과 山外派 승려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들이 바로 仁岳과 可久 등 2인이었다. 이들 2인은 師弟關係에 있던 인물들로서 後山外派, 또는 雜傳派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의천과 교류한 인물 가운데 前山外派의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의천이 宋에 가기 전에 모두 入寂한 뒤였기 때문이라고 보며, 仁岳과 可久 등 2인도 모두 의천과 교류하게 될 때는 그들의 말년경이었다.

한편 의천은 宋에서 3,000여 권의 많은 佛典을 수집하여 왔는데, 특히 宋의 天台宗僧의 저술을 열심히 수집하여 왔음이 의천이 귀국한 뒤 편찬한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불전목록에서 宋代 天台宗僧의 저술만을 뽑아 山家派와 山外派로 분류하여 보면, 山家派의 저술이 모두 11人 33部 76卷, 山外派의 저술이 모두 7人 63部 189卷이 되어 山外派의 저술 分量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山外派의 저술 가운데는 知禮를 비롯한 山家派의 教說을 직접 논란하였던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의천의 山外派의 주장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山外派 승려 가운데는 특히 前山外派의 孤山智圓(976~1022)의 저술이 31部 129卷, 後山外派의 淨覺仁岳의 저술이 23部 48卷에 달하여 이 두 사람의 저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大覺國師文集』에서도 智圓에 관한 언급이나 그의 책의 인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仁岳의 서신이 실려 있음을 보아 의천의 친제사상에는 智圓과 仁岳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13) 고려 仁宗 15년(1137)에 수립된 「南嵩山德風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에는 “(의천이) 求法하고 돌아와서 지유에 왕에게 올린 표문에서 ‘반리의 과도를 건너 百城의 善友의 만나서 두루 眞教을 尋問하였음은 오로지 성상의 위엄에 힘입은 것이온바, 天台 賢首의 총화와 晉水 孤山の 교지에 이르기까지 외람되게 향로와 불자를 전해받았으니, 이는 箕裘를 잘못 承事한 것이 아닌가 저으기 걱정됩니다.’ 라고 하였다.”라 하여 의천이 宋에서 친제의 孤山智圓과 화언의 晉水淨源으로부터 불법의 종지를 받아 왔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大覺國師文集』 권8에 실린 「至本國境上乞罪表」, 및 『外集』 권13에 실린 「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 등에는 이와 다른 내용

한편 고려초 光宗 12년(961)에 諦觀은 天台典籍을 吳越에 전하여 중국 친태종을 부흥케 하여 준 것으로 유명하거나, 그가 지은 『天台四教儀』는 친태종의 개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그에 대한 註疏가 73종 130여종이나 나왔을 정도로 중국·한국·일본의 3국의 친태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天台四教儀』를 최초로 校勘하여 板刻한 인물이 바로 山外派의 智圓이었다. 智圓이 많은 저술을 남기면서 山家派에 대항하는 謀將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天台四教儀』가 일찍부터 특히 山外派 승려들에게 주목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天台四教儀』의 註釋書로서 가장 앞선 연대의 것은 從義(1042~1091)의 『天台四教儀集解』 3卷인데, 仁岳의 科文을 臺本으로 하고 있다. 仁岳과 從義는 모두 後山外派에 소속된 인물로서 『天台四教儀』 연구의 효시가 되고 있다. 의친은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諦觀의 『天台四教儀』와 함께 仁岳의 『科』 1卷, 從義의 『科』 1卷, 『集解』 3卷, 從陳의 『講義』 3권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또한 의친 자신도 직접 그것을 註釋하여 宣宗 6년(1089) 2월 海印寺에서 중간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의친이 宋 山外派 승려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諦觀의 『天台四教儀』를 대단히 중시하였으며, 또한 그를 한국 친태종의 祖師로서 높이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

을 전하여 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전략) 慈恩 賢首의 종학과 台嶺 南山의 교지에 이르기까지 외람되게 향토와 분자를 전혀 받았으니, (후략)”라 하여 法相宗 華嚴宗 天台宗 戒律宗의 4종의 종지를 받아 온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문집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측컨대 仁宗 9년(1131) 林存이 왕명을 받아 찬술한 원래의 비문은 문집의 내용과 같았을 것이나, 仁宗 15년(1137) 비석을 세울 때에 친태종의 승려들이 의친의 불교 가운데서 특히 친태종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法相과 戒律을 제외하고 화엄과 친태만을 받아 온 것으로 내용을 조작하여 새긴 것으로 보인다.

- 14) 의친이 諦觀을 한국 친태종의 조사로서 높이 추앙하고 있었음은 그의 문집과 「佛鳳寺天台始祖大覺國師碑」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친태산을 찾아 智者大師塔 앞에서 올린 발원문에서는,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저희 나라에도 옛적에 諦觀법사가 있어서 대사의 教觀을 다른 나라에까지 유통시키었으나, 그 전하여 익히는 계통이 끊어져서 지금은 없으니, 불초한 이 의친이 분발하여 문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스승을 찾고 노를 불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아 諦觀이 전한 교법이 끊어진 것을 애석해 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다시 잇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圖表 2,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宋代 天台宗僧의 著述目錄(人名別)

1. 山家派

(1) 四明知禮

法華十不二門指要鈔	二卷
同 科	一卷
法華義疏記	二卷
同 科	一卷
金光明經文句科	二卷
文句記	六卷
玄義科	一卷
玄義拾遺記	三卷
釋難扶宗記	一卷
十義書	五卷
觀無量壽經妙宗鈔	三卷
科	一卷
請觀音經釋消伏三用	一卷
別理隨緣二十門	一卷

(2) 慈雲遵式

華嚴經懺要鈔	四卷
金光明經懺法補助儀	一卷
觀無量壽經往生淨土決疑行願二法門	一卷
小阿彌陀經往生淨土懺願儀	一卷
請觀音經懺儀	一卷

(3) 南屏梵臻

十不二門摠別指歸	一卷
----------	----

(4) 廣智尚賢

答三千書	一卷
------	----

經體章	一卷
(5) 慈辯從諫	
議方便品題	一卷
(6) 辯才元淨	
圓理事說	一卷
科	一卷
(7) 廣慈慧才	
圓教解行集要	一卷
(8) 扶宗繼忠	
金光明經上義書科	一卷
解謗書	三卷
天台類集口義	三卷
(9) 處謙	
法華十不二門顯妙	一卷
(10) 如吉	
天台文類	十卷
(11) 澄曠	
觀無量壽經注十疑論	一卷
般若心經顯宗記	二卷
* 合計 11人 33部 76卷	

2. 山外派

(1) 靈光洪敏	
資中疏真證鈔	六卷
(2) 孤山智圓	
大涅槃經疏科	二十卷
三德指歸	二十卷
玄義科	二卷

發源機要	二卷
金剛鐔科	一卷
顯性錄	四卷
無量義經疏	二卷
首楞嚴經顯贊鈔記	十四卷
疏	十卷
谷響鈔	五卷
科	六卷
維摩經垂裕記	十卷
科	六卷
般若心經疏	一卷
詒謀鈔	一卷
科	一卷
普入不思議法門經疏	一卷
文殊說般若經疏	二卷
觀無量壽經刊正記	二卷
科	一卷
小阿彌陀經疏	一卷
賈資鈔	一卷
科	一卷
四十二章經注	一卷
正義	一卷
孟蘭盆經摭花鈔	二卷
科	一卷
禮讚文	一卷
佛遺教經疏	二卷
科	一卷

(3)永嘉繼齊

指濫	一卷
(4) 宗昱	
注法華本迹不二門	一卷
(5) 淨覺仁岳(以下 後山外派)	
大涅槃經禮讚文	一卷
十不二門文心解	一卷
科	一卷
論三千書	一卷
首楞嚴經集解	十卷
文句	二卷
熏聞記	五卷
說題	一卷
說題科	一卷
禮誦儀	一卷
金剛般若經疏	二卷
經輪鈔	三卷
科	一卷
觀無量壽經十誦普	一卷
小阿彌陀經新疏	二卷
新疏指歸	二卷
科	一卷
佛遺教經助宣記	二卷
四分律南山祖師禮讚文	一卷
施食須知	一卷
天台四教儀科	一卷
義學雜編	六卷
復右旋行道儀	一卷
(6) 慈梵	

法華經讀不二門新注	一卷
首楞嚴經說題通要	二卷
(7) 新智從義	
天台四教儀科	一卷
集解	三卷

* 合計 7人 63部 189卷

그런데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은 각 권의 卷首에 <海東有本見行錄>이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단순한 文獻上의 書目을 集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현재 蒐集하여 所藏하고 있는 章疏의 總目으로써 刊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전과, 그리고 그가 수집한 것 가운데서도 그의 불교 기준에 의하여 다시 취사 선택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宋의 천태종의 승려 가운데 山外派의 著述을 다수 수집하여 後疏目錄에 수록하고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화엄종의 의천이 천태종을 새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화엄교학과의 대결을 목표로 하여 『大乘起信論』의 唯心論이나 華嚴의 性起說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천대교학으로서 實相論이나 性具說을 지키려고 하던 山家派의 正統 天台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그의 불교 입장과 합치될 수도 없었던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천은 천태종의 불교 내용에 있어서는 山家派보다도 山外派의 敎學에 더 공감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宋의 불교계 상황을 직진 목격하였고, 수많은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宋의 불교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의천으로서는 正統 天台學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던 山家派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그 山家派 천태학의 전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천의 천태종에 있어서 표방과 내용의 차이,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오늘날 山家派 山外派 사이에 論難된 저술들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正統派로 자처하던 山家派의 知禮의 『十義書』와 『觀心二百問』

등 일부만이 전해짐으로써 그 論難의 實相은 그 半面만을 아는데 그치게 되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의천이 수집하여 간행한 많은 분량의 宋代 천태학의 저술, 특히 山外派의 저술이 모두 逸失되어 전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山家派와 山外派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송대 천태학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천태학에서의 의천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四

渡宋에 앞서부터 天台宗 개창의 의지를 갖고 있던 義天은 宋에서 먼저 화엄종의 淨源으로부터 華嚴教觀을 전수받는 가운데 華嚴과 天台의 調和可能性을 확인하고, 곧이어 天台宗의 從諫을 찾아 天台教觀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天台山을 찾아 智者大師塔 앞에서 천태종의 개창을 誓願하고 귀국하였다. 이로써 천태종 창립의 일차적 준비를 일단 마치게 된 의천은 귀국하자마자 佛敎典籍을 정리 간행하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천태종을 개창하는 작업에 곧 착수하였다. 천태종의 개창 작업은 구체적으로 寺刹의 창건과 僧侶의 모집을 통한 敎團組織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의 개창은 화엄종의 불교계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대신에 법상종과 선종에는 타격을 줌으로써 중앙의 교단체제에서 종파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교계의 개편을 초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교계의 반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근본사찰인 國淸寺와, 그리고 개경에 소재한 또다른 천태종 사찰인 天壽寺의 창건과정에서 불교계의 반발과 왕실과 仁州李氏를 비롯한 門閥貴族 등의 정치세력 간의 대립 갈등의 양상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적지않은 파란곡절을 겪게 되었다.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는 과정에서 제일의 후원자가 된 사람은 생모인 仁睿太后와 형인 鷄林公 熙(뒷날의 肅宗) 등 2인이었는데, 개경에 천태종의 근본도량으로 창립된 國淸寺와 天壽寺는 바로 이들의 願刹이었다. 그 가운데 국청사는 인예대후가 자신의 願刹로서 宣宗 6년(1089) 10월에 착공하였으나,

5개월 만인 다음해 3월 新興庵이 비락으로 소실된 사건이 발생하자 順宗의 원찰인 弘圓寺와 함께 공사가 중지되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은 공사 중지의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이유는 천태종 개창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외척 仁州李氏세력과, 그리고 인주인씨세력과 연결되어 있던 法相宗 교단 측으로부터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예태후는 천태종 개창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선종 9년(1090) 6월 白州의 見佛寺에서 1만일을 기약하는 天台宗禮懺法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말년까지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해 9월 서경에서 세상을 떠남으로써 천태종 개창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宣宗이 11년(1094) 5월에 세상을 떠나고 인주이씨 출신인 李資義가 집권하게 되자, 의천도 그해 2월 興王寺의 주지직마저 내놓고 弘圓寺 주지로 옮기었다가 5월에는 마침내 海印寺로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해 7월 李資義 일파에 의해서 꾀박받던 鷄林公熙가 구테타를 일으켜 李資義 세력을 제거하고, 이어 10월 肅宗으로 즉위하게 됨으로써 의천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興王寺의 주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국청사의 공사를 재개하여 마침내 肅宗 2년(1097) 2월 준공을 보게 됨으로써 비로소 한국에서의 천태종의 개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大壽寺는 肅宗의 원찰로서 창건된 것인데, 숙종대에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숙종이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睿宗代에 공사가 계속되었으나,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되는 등의 적지않은 파단곡절을 겪은 끝에 睿宗 11년(1116)에 가서야 비로소 완공될 수 있었다. 이로써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의 개창은 전체 불교교단의 개편과 종파 사이의 균형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불교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도 맞물림으로써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천은 國淸寺가 준공되자, 興王寺의 주지직을 계속 보유한 채로 국청사의 주지를 兼職하고 천태교단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의천은 천태종 교단을 조직함에 있어서 자신이 원래 속하였던 화엄종의 승려는 단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오로지 禪宗 승려만을 포섭하여 새로 구성하였다.¹⁵⁾

仁宗 15년(1137)에 수립된 「僊鳳寺天台始祖大覺國師碑」의 陰記에 의하면,

“吾祖 대각국사가 왕궁에서 탄생하여 (천대산의) 佛龕에서 법등을 전해받고 본국에 돌아와 친제진종을 으뜸하니, 덕은 고독하지 않아서 이웃이 있었고, 구슬은 부르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이르러 왔다. 그러므로 居頓寺, 神□寺, 靈巖寺, 高達寺, 智谷寺 등의 五法眷의 名公 學徒들이 명령에 따라 함께 모였으며, 그밖에 대각국사의 분하로 직접 투신한 諸山의 名公 學徒 300여 명과 앞의 五門學徒와 더불어 무려 1,000 명이었다.”

라 한 것을 보아 처음 교단조직 당시의 천대종의 인원수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모두 선종의 승려였음이 주목되며,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 한 그룹은 居頓寺, 神□寺, 靈巖寺, 高達寺, 智谷寺 등 5개 사찰의 승려 700여 명으로서 이들은 모두 고려초 光宗代 吳越로부터 받아들여진 法眼宗 계통의 禪僧들이었음이 주목된다. 이로 보아 고려초의 法眼宗은 光宗이 세상을 떠난 뒤 改革政治의 중단으로 인하여 독립된 종파로 창립되지는 못하고 말았으나, 그의 法孫들이 지방의 사찰에서 이어져오다가 의천의 천대종 개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음으로써 그 창립의 인적기반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제2의 그룹은 의천이 직접 자신의 문하로 포섭한 禪僧 300여명인데, 德麟·翼宗·景蘭·連妙 등 4인이 각기 자신의 문도들을 거느리고 천대종 교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의천이 이와 같이 선종

15) 의천에 관한 비석은 靈通寺와 僊鳳寺 두 곳에 세워졌는데, 영봉사의 것은 仁宗 3년 의천의 화엄종 계통의 제자들이 수립한 것으로 그 음기에 열거된 문도들은 모두 화엄종 승려들뿐이다. 그리고 선봉사의 것은 仁宗 15년 의천의 천대종 계통의 제자들이 수립한 것으로 그 음기에 열거된 문도들은 모두 천대종의 승려들뿐이다. 따라서 두 비석의 음기에 기록된 문도들의 명단은 한 사람도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두 종단의 승려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도들의 명단을 나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영봉사의 비석에서는 僧統 首座 三重大師 重大師 大師 大德 등 法階 순으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봉사의 것에서는 德麟 翼宗 景蘭 連妙 등 師僧 별로 분류하여 法系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교종보다 선종에서 法系를 중시하였던 특성 때문이었다고 본다.

승려만을 포섭하여 천태종 교단을 조직한 결과 선종교단은 천태종으로 개종한 승려들과 선종을 고수하려는 승려들로 양분되고 말았다. 선종을 고수한 승려들이 의천의 死後에 다시 대두하면서 그 교단의 이름을 천태종에 대항하는 의미로 禪門九山 대신에 새로이 曹溪宗이라고 칭하게 되었다.¹⁶⁾ 그 결과 신라말 이래의 禪門九山은 천태종 창립으로 인하여 天台宗과 曹溪宗으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의천은 천태종 교단의 조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여러 차례 天台學을 강의함으로써 교리체계의 마련을 통한 종지의 정립에 노력하고 있었다. 『大覺國師文集』에서만도 3번의 강의 사실이 확인되는데, 첫번째는 肅宗 2년(1097) 5월 國淸寺의 준공기념으로 천태종의 근본경전인 『法華經』의 강의를 이루어졌고, 다음 肅宗 4년(1099) 9월에는 三角山의 香林寺에서 荊溪滿然의 『本迹·妙不二門』을 강의하였다.¹⁷⁾ 그 다음 肅宗 5년(1100) 6월에는 國淸

- 16) 종파의 이름은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과 같이 근본경전의 이름이나 근본종지의 내용에서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천태종이나 조계종의 두 종파만은 중국의 산 이름이나 지명에서 취한 것이다. 천태산은 중국 浙江省 台州에 소재한 산의 이름으로 천태종의 근본 도량인 國淸寺가 위치하고 있으며, 천태종을 개창한 智顓가 이곳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天台大師라고 불려졌다. 그리고 曹溪라는 명칭은 중국 廣東省 韶州 雙峰山 및 寶林寺가 자리했던 곳의 지명으로 曹侯村의 시내(溪)라는 말인데, 이곳에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창립자인 六祖惠能이 머물러서 선종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일러 曹溪大師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불교사에서는 曹溪라는 이름은 선종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을 뿐 구체적인 종파의 이름은 아니었으나, 한국불교사에서는 선종교단의 실제적인 종파명으로 사용되었다. 조계종이라는 명칭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불교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필자로서는 의천에 의한 천태종의 창립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천태종의 창립으로 禪門九山이 양분하게 되자, 천태종에 가담하지 않은 선승들에 의해서 천태종에 대응되는 명칭으로 曹溪宗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 1938 ; 金煥泰,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韓國史論』 20, 1990 참조).
- 17) 荊溪滿然(711~782)은 唐代 후기 천태학을 크게 진흥시킴과 함께 華嚴化로의 단서들인 인물로 유명하는데, 그의 교학의 주요 내용으로는 法華至上主義, 性具說과 性惡說, 無情有性說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大乘起信論』의 眞如隨緣의 사상에 의해서 萬法의 眞實性을 논하였고, 『華嚴經』의 사상에 기초하여 法과 佛의 一體性,

寺에서 천태학의 원류이라고 할 수 있는 天台智顓의 『法華玄義』 10권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처음으로 天台宗의 宗選을 실시하여 奉恩寺에서 100명의 학생을 뽑아 천태종의 經論 120권으로 시험하여 그 가운데 40여인을 합격시킴으로써 교단체제에서 천태종의 개창을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이로 보아 의천은 천태교학의 진흥과 교단의 정비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천의 관심은 천태종의 教學에만 한정되었고, 止觀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의천은 천태종의 개창에 앞서 화엄종에서의 教觀并修를 주장하면서 均如로 대표되는 고려의 전통적인 화엄학을 비판하였다. 특히 의천은 宋에 가서 淨源에게 화엄을 수학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화엄종 측의 제자들에게 教學과 觀門, 즉 학문적 이론과 실천 수행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⁸⁾ 그런데 의천에 의해서 새로 제기된 教觀并修說은 고려 화엄종을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킨 의의를 가진 것이었으나, 의천의 觀門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결여된 觀念性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래 화엄종의 實踐門으로서의 法界觀은 그 究竟이 事事無碍法界인데, 哲學思想으로서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究竟의 인 발달을 보인 것이지만, 宗教的 實踐이라는 면에서는 취약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 화엄종에서의 觀門의 觀念性을 극복하는 방법은 宗密과 같은 적극적

法性和 佛法의 一義性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無情有性說도 근본적으로는 『大乘起信論』의 唯心論의 世界觀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교학은 길과직으로 천태교학과 화엄교학의 사이를 크게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화엄종의 입장에서 천태종을 새로 개창하면서 두 교학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던 의천에게 湛然의 교학은 당연히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는 湛然의 지술을 다량 수집하여 편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자신이 『法華經』, 『法華玄義』와 함께 湛然의 『天台本迹十妙不二門』을 우선하여 강의한 것도 湛然의 교학을 중요시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의천의 불교의 祖師說로서 화엄의 九祖說과 천태의 九祖說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에는 화엄종에서의 清涼澄觀과 함께 천태종에서의 荊溪湛然을 각기 화엄종과 천태종의 최종의 조사로서 중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拙稿, 「義天이 均如를 비판한 이유」 『亞細亞에 있어서 華嚴의 位相』, pp. 147-175, 1991.

인 禪教一致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나, 禪宗 자체를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않은 의천으로서 宗密의 禪教一致說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앞선 澄觀의 과도기적인 화엄의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여하튼 의천은 화엄의 實踐門인 法界觀을 가지고서는 철저한 實踐佛敎인 禪宗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의천은 화엄의 法界觀 대신에 그보다 實踐性이 강한 천태종의 止觀을 가지고 선종을 포섭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천은 천태종의 止觀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추구하지는 못함으로써 不立文字 敎外別傳을 주장하는 達磨 계통의 선종을 부인하면서 禪門九山의 선승의 일부를 천태종으로 개종시키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불교의 내용에서는 이름만 禪宗에서 天台宗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불교의 실천수행의 방법까지 天台止觀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의천이 창립한 천태종은 敎觀并修를 그 종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뒤 교학의 연구마저 중단됨으로써 실제적인 불교 내용은 선종의 그것과 구별되는 正體性을 확립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태종 교단의 모순은 의천이 세상을 떠난 뒤 曹溪宗이 크게 융성하게 됨으로서 교단의 진로에 어려움을 겪지않을 수 없게 하였다.

五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禪門九山이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양분된 결과, 교단체제는 고려초기의 화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禪門九山으로 이루어졌던 3개의 종단체제에서, 이제 교종 계통의 華嚴宗과 法相宗, 선종 계통의 天台宗과 曹溪宗 등 4개 종단 중심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천태종의 위상은 이러한 4개 종단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의천이 세상을 떠난지 4년 만인 1105년 10월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肅宗마저 죽음으로써 천태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달인 11월 천태종의 개창에 직접적으로 반발하였던 법상종에 속한 玄化寺의 德昌이 王師로 책봉되고, 이어 睿宗 2년(1107)에는 의천과 교류하면서도 천태종의 개창에는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였던 曇眞이 다시 王師로 책봉되고 있었으며, 또한 睿宗 7년(1112)에는 숙종의 원찰인 天壽寺의 공역이 중단되고 함께 의천의 동생인 導生僧統 窺가 지방으로 유배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 등은 義天의 영향력의 감퇴와 천태종 교단의 위축을 의미한 것이었다. 불교계에서의 이러한 추세는 다음의 仁宗대에도 이어져 그 즉위년(1122)에 법상종의 승려로 추정되는 德緣이 國師, 그리고 의천의 수차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禪과 講을 交濫할 수 없다.” 고 하여 선종을 고수한 學一이 王師로 각기 책봉되고 있었다. 이로써 예종대와 인종대에는 중앙의 불교계에서 천태종의 개창에 반발한 법상종과 선종 안에서 천태종과 경쟁 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조계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반면에 의천 계통인 화엄종과 천태종은 크게 위축됨을 면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천태종 교단의 위기 상황은 교단 밖에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즉 의천이 세상을 떠난지 얼마 아니되어 천태종 교단은 法眼宗 계통의 승려들과 直投弟子들의 두 파로 나뉘어 대립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법안종 계통의 五法眷의 승려들은 원래부터 근거로 삼은 本山의 사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기 본산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중앙의 교단에는 의천에게 直投한 門下의 弟子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肅宗은 9년(1104)에 앞의 五法眷과 直投弟子를 합한 六法眷 가운데, 直投弟子들을 가장 首位에 두게 함으로써 正統으로 인정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여 주었다. 그 결과 이들이 이후 천태종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 중심으로 천태종의 正體性을 확립하고, 아울러 의친 계통으로서의 正統性을 과시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 “天台始祖大覺國師碑”의 건립운동이었다. 그리하여 仁宗 7년(1129)에 의친의 천태종 개장의 업적을 기리는 “海東天台始祖碑”를 南高山寺에 건립하기로 인종의 허락을 받고, 인종 9년(1131)에 林存에게 비문 찬술을 명하고, 마침내 인종 15년(1137)에 비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비석을 세우기에 앞서 인종 14년(1136)에 中書門下省에서 論功하여 왕의 명을 받아 大覺國師碑의 陰記에 천태종 계통의 의친의 法係들의 명단을 기록케 하였는데, 德麟·翼宗·景蘭·連妙 등 의친에게 直投한 4인의 法係들로 국한되었다.¹⁹⁾ 이 결과 이들 4인의 법손들이 천태종의 주류를 이루어 武人執權 초기까지 이어지면서 병맥을 유지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翼宗·教雄·德素로 이어지는 계통이 가장 번성하여 明宗 원년(1171)에는 德素가 천태종 승려로서는 최초로 工師에 책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武人執權期가 되면서 화엄종·법상종·천태종·조계종 등 불교의 각 종파에서 제각기 커다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불교계의 주류가 教宗에서 禪宗으로 바뀌어가는 추세 속에서 禪宗의 색채를 불식하고 천태종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하려고 한 인물이 圓妙了世(1163~1245)였다. 그는 普賢道場을 결성하여 法華三昧를 실천하고 往生極樂淨土를 서원하였는데, 이것은 그대로 순수한 天台儀法의 실천행이었다. 요세는 매일 禪觀을 닦고 『法華經』을 독송하고 「准提神呪」 1천번, 阿彌陀佛 1만번을 念하는 등 천태종의

19) 天台始祖大覺國師碑의 陰記에 德麟·翼宗·景蘭·連妙 등 4인의 법손들의 명단만을 기록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천태종 교단 안에서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의친의 같은 문도라는 입장에서 화엄종 승려들과의 경쟁의식, 그리고 같은 선종에 속한 종파라는 점에서 조계종 승려들과의 대립의식 등의 종파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천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초기에 知訥의 修禪社에도 한때 참가한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독립하여 康津의 萬德山에서 白蓮社를 별도로 조직하고 知訥의 定慧雙修의 실천방법에 맞서 철저한 天台三昧嚴法의 실천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天台智顓의 「天台三大部」를 節要하여 판각 유통시키고, 또한 四明知禮의 『觀無量壽經疏妙宗鈔』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了世가 智顓 당시의 原始天台學, 또는 唐末 이후의 華嚴화된 천대학을 비판하고 原始天台學에로의 복귀를 주장하던 知禮의 천대학을 계승함으로써 華嚴宗과 曹溪宗, 특히 당시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된 曹溪宗의 修禪社 교단에 대하여 천대종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了世의 白蓮社 佛教는 義天의 천대종과 비교할 때 같은 이름의 천대종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 교학이나 신앙의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었다. 義天의 천대종은 敎學的인 면에서 화엄과의 조화를 모색하였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華嚴화된 천대학으로서의 宋代 山外派의 天台學에 비교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實踐門에서는 천대의 止觀을 철저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禪宗의 修禪方法을 그 내용으로 간직한, 이름 뿐인 천대종이었던 데 반하여, 了世의 천대종은 천대종의 正體性을 확립하여 순수한 천대의 교학과 실천방법에 철저하려는 宋初의 知禮를 대표로 하는 山家派의 天台學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宋初의 知禮의 불교와 了世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지도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 가운데 知禮의 그것이 華嚴화된 山外派의 天台를 비판하여 천대교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것을 주로 의도하는 것이었던 데 비하여,²⁰⁾ 了世의 그것은 순수한 천대의 실천

20) 宋대의 천대종에서는 천대종 내부에서의 山家派와 山外派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종과 천대종의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두 종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의 중심적인 주제는 “立祖相承”에 관한 것이었는데, 雲門宗의 契嵩과 天台宗의 子昉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이 가장 유명하였으며, 神智從義도 선종의 法統說을 공격한 바 있었다. 知禮도 선종과의 논쟁에 참여하였는데, 天童寺 子凝과의 사이에 서로 논란을 왕복하였다. 그러나 知禮의 경우는 山外派의 천대를 비판하여 智顓敎學에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의식하였던 것이

신앙의 정립을 통하여 曹溪宗의 修禪社에 대한 正體性의 확립을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了世의 白蓮社 佛敎가 더욱 實踐性이 강한 반면에 知禮敎學에 비견될 수 있는 방대한 교학체계를 수립해 주지는 못하고 말았다는 차이점이 나타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了世의 白蓮結社를 통한 불교의 혁신운동은 의천의 화엄종의 입장에서 창립된 천태종, 그리고 宋의 山外派의 화엄화판 천태학을 뛰어넘어 智顓 당시의 原始천태학, 또는 知禮의 교학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천 이후의 고려 천태종이 그 내용면에서 선종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천태의 실천신앙으로서의 正體性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천의 불교과 요세의 그것 사이에는 천태교학의 내용이나 실천신앙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교의 사회적 성격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의천은 文宗의 넷째 아들이자 왕실 출신이었으며, 그의 불교 활동도 중앙의 불교계를 무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천태종의 창립을 통한 교단체제의 개편을 시도하였는데, 肅宗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추진된 것이었다. 그 결과 의천 불교의 사회적 성격은 극히 귀족적이었으며, 또한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었으므로 왕실과 문벌귀족 사이의 정치싸움에 휘말리어 그의 불교활동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지않은 파단곡절을 겪지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하여 요세는 그의 아버지가 陝川 지역의 戶長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지방의 토호 출신이었으며, 그뒤의 불교활동도 주로 지방인을 대상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무인집권기인 1185년(23세)에 승과에 합격하고, 이어 1198년 봄에 개경의 천태종 사찰인 高峯寺에서 개최된 법회에 참석하였다가 병리의 추구에 몰두하는 불교계에 실망하여 지방에 내려가 실천신앙에 전념하였다. 그는 한때 知訥의 修禪結社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얼마 아니되어 지눌과 갈라섰다. 그는 뒷날 독자적으로 白蓮社를 조직하고 法華懺法과 아미타신앙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귀족화되고 세속화된 불교계를 비판하고 국가체제 속에

며, 선종과의 논쟁이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편입된 교단체제에서 빛이나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을 무대로 하여 불교의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던 전에서는 知訥과 了世의 불교가 공통적이었으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눌의 불교보다도 요세의 그것이 더욱 서민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런데 지눌이 고려중기 曹溪宗 전동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了世도 의천에 의해서 창립된 천태종의 전동을 부인하고 새로운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崔滋가 찬술한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에 의하면,

“고려에 있어서는 玄光, 義通, 諦觀, 德善, 智宗, 義天의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교리를 불어 천태종의 三觀의 뜻을 배워서 국내에 전도하여 우리나라를 부되게 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으나, 普賢道場을 열고 널리 불경을 읽도록 권하기까지 한 일은 없었다. 오직 대사가 종교가 쇠해 가던 때를 당하여 크게 法幢을 세워 법을 듣지 못하였던 세속을 놀라게 하여 뿌리 없던 信心을 서게 하고, 祖師의 교리가 다시 일어나 친하여 선포하게 하였으니, 本願力으로 말세에 태어나서 如來의 시킨 바 되어 어래의 일을 행하기를 어찌 이렇게 했겠는가?”

라고 하여 白蓮社의 교단에서 요세를 쇠퇴한 불교를 부흥시킨 인물로 찬양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천태종을 개창한 義天을 玄光·義通·諦觀·德善·智宗 등 의천에 앞서 천태종을 전해왔던 다른 승려들과 같이 나열하는데 그친 점이다. 이 점은 林存이 찬술한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에서 의천을 海東天台宗의 始祖로 추앙하고 있었던 사실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평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써 백련사 교단에서는 의천을 그 이전의 다른 천태종 승려들과 구별하여 海東天台宗의 始祖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리고 요세의 불교가 의천의 천태종을 직접 계승한 것으로도 의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련사 교단에서의 이러한 고려 천태종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기반에는 의천의 불교와 요세의 그것 사이에 같은 천태종에 속하면서도 교학과 실천신앙,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의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던 점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었음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Ŭich'ŏn's Foundation of the Ch'ŏnt'ae Sect and its Relation to Song Dynasty's Tiantai Buddhism

Ch'oe Byong-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s part of a project to understand Korean Buddhist history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Buddhism - coming after several studies on the thought of Wŏnhyo and Chinul - seeks to adopt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h'ŏnt'ae sect founded by Ŭich'ŏn. I considered therefore Ŭich'ŏn's activities within the background of East Asian Buddhism, and examined their relation to the Tiantai sect in China. At a time when the Hwaŏm and Pŏpsang sects were polarised and opposing each other, Ŭich'ŏn - though sticking fast to the Hwaŏm precepts - established a third sect, namely the Tiantai, with the objective of weakening the Sŏn sects (Nine Mountains) by attracting their monks to the newly founded Ch'ŏnt'ae. Due to Ŭich'ŏn's ideological background the ideals of "harmonization of the Ch'ŏnt'ae and Hwaŏm sects" from the doctrinal point of view, and of the "simultaneous cultivation of theory and practice" (kyogwan pyŏngsu) were both perceived as of the utmost importance. Therefore the process of adopting the Tiantai sect of the Song dynasty implied two aspects: while on one side it claimed officially to adopt the tenets of the orthodox Shanjia pai, on the other side in terms of content it was actually closer to the Shanwai pai, which was generally considered heretical and retained a strong Huayan influence. As the Ch'ŏnt'ae sect was based on a clergy exclusively composed of Sŏn masters, it remained Ch'ŏnt'ae only in name after the death of Ŭich'ŏn. Its contents and character were heavily laden with Sŏn elements. Thus, the establishment of the Ch'ŏnt'ae sect led to a division of the Sŏn sects of

Koryŏ into the Ch'ŏnt'a'e and the Chogye orders. Consequently, the Ch'ŏnt'a'e sect was thereafter officially classified as a Meditation sect also by the State. Yose (1153-1245) understood the problems of the Ch'ŏnt'a'e sect as deriving from its Sŏn character and tried to solve them through the adoption of the Tiantai teachings of Siming Zhili, a representative of the Tiantai sect during the early Song dynasty. He emphasized a type of faith centered on the Lotus Sutra and the Pure Land teachings, thereby trying to establish the true character of the Ch'ŏnt'a'e sect, as distinct from the Hwaŏm and Sŏn sects. In view of the above it seems obviou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octrinal contents and historical character of the Ch'ŏnt'a'e sect of Ŭich'ŏn we need to adopt a comparative approach and analyse Ŭich'ŏn's Ch'ŏnt'a'e in conjunction with the Tiantai sect of China, and particularly that of the Song dynasty. We also need to mention that Japanese Tendai followed quite a different path of development. It cam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esoteric Buddhism, while in Korea and China, as mentioned above, the Ch'ŏnt'a'e tradition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both the Hwaŏm and Sŏn doctrines.